



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, 모든 것을 행할 때,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담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.

### 셋째, 채우시는 하나님

하나님은 무엇을 채워 주실까요?

물질을 채워 주십니다. 건강을 채워 주십니다. 만남의 축복을 채워 주십니다. 진로가 열어지는 복을 채워 주십니다.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채워 주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강력한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.

어린 시절 시골에 내려가 친척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의 밥그릇은 얼마나 큰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의 2~3배 정도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밥도 산처럼 쌓아서 주십니다.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러자 숙모께서 '벌써 다 먹었구나.' 하시면서 다시 그만큼 한 그릇을 더 채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'아, 이거 어떻게 먹지?'하고 힘들어했었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? 왜 이렇게 채우실까? 지금 돌아켜 보니,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. 사랑하면 채워 주고 싶은 겁니다.

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.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
## 2부 예배

◆ 축복의 찬양 .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.. 다 같 이

「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

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

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

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

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

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」

◆ 축복해주기 ..... 서로 서로

◆ 기도제목 나누기 ..... 서로 서로

